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 이해 및 적응에 관한 사례 연구*

- 서울지역 어린이집 어머니를 대상으로 -

The Case Study on Understanding and Adjustment about the Family Living Culture
in Marriage Emigration Females
- Focused on Mothers in a Day- Care Center in Seoul -

경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과
교 수 이 애 련**

Dept. of Child welfare, Kyungwon Univ.
professor: Lee, Ae Lyeon

〈 목 차 〉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marriage migration females understand and adjust to the culture of family life in Korea.

The study was the conducted by extensively interviewing one member from each of a total of 16 women's multicultural families at a daycare center area in Seoul between June 16,2010 and July 28,2010.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ll interviewees were marriage migration females, in the range 20 to 50 years of age, and with middle educational backgrounds. They all had middle-level incomes.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of the informants' responses, three major factors were found to influence the understanding and adjustment of to the culture of family living:

* 이 연구는 2010년도 경원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

** 주저자, 교신저자: 이애련 (haeng@kyungwon.ac.kr)

personal factors, familial support, and sociocultural support systems.

Among the personal factors, the intimacy of the married couples was trouble major factor. An issue that tended to arise was that Korean husbands' traditional culture in terms of their way of thinking was often different from that of the wife's culture.

However, husbands supported their wives' outside activities and friendships in order to help them adjust to the culture of family living. The husbands made an effort to understand their wives' original culture and national food, often visiting restaurants that served their wives' national cuisine.

In terms of familial support, the most important factors affecting marriage migration females were orienting the education of children to the mother's native language, cooking their national foods, and visiting the mother's nation with the children. Marriage migration females had the following requires: The teacher in the daycare center needed to be interested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encourage self-pride in the marriage migration females' children.

In terms of sociocultural support systems, marriage migration females are conscious of the indisposition and lack of consideration in Korean life.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and local provinces are concentrating attention on education for marriage migration females in terms of language, because learning the language can help these women to become accustomed to the rituals of Korean life.

Marriage migration females make an effort to understand and adjust to Korean family living culture that involves the food culture for ceremonial occasions, folk plays, and places of historic interest. A matter of importance is Korean people's effort to understand and adjust to multicultural family with their distinctive cultures. Welfare policy related to multicultural families involves adopting supportive laws and actions.

Key Words : 결혼이주여성(marriage emigration females), 가정생활문화(family living culture), 문화이해와 적응(understanding and adjustment in culture)

I. 서론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결혼 당사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다른문화에 대한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서 적응하는데 문화적응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부부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은주, 2009; 김미령, 2005; 김양희, 2007; 김오남, 2006; 이영선, 2008), 결혼이주여성의 부부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정

생활문화 적응 및 이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국제결혼한 부부가 연령이나 학력, 사회인구학적 상이성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김두섭 외, 2007), 한국사회의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시선은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한국생활을 어렵고 하고 있다(추현화 외, 2008).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유아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 미취학 자녀의 언어발달 수준은 일반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언어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학령기까지 이어지고 있

다. 또한 한국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습득이 부족한 채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채옥희 외, 2009) 다문화가정의 가정생활 및 교육문제는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혼이주 여성의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다른 두 문화에서 혼돈을 겪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부모는 각기 다른 문화의 차이에 대한 바른 인식을 자녀에게 주어야 한다. 영유아기의 가정생활문화의 습득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어린이집에서의 교육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 때 형성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자긍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가정과 보육교육기관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가족은 교사와의 상호지원적인 관계 속에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Noonan & McCormick, 2006).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선, 2007; 최명선 외, 2008),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Berry, 2002)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두 나라 문화 및 언어를 습득하여 국제화시대에 장점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적응사례(신유경, 2010; 채옥희, 2009, 강기정 외, 2009)는 이들 여성들이 한국의 가정 및 문화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여성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하며, 탐색적 시도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연구대상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교육하기를 원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였다.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다른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필요하며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원만한 가정

생활뿐만 아니라 그들 자녀들이 우리사회에서 건전한 한국인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결혼이주여성의 특징과 실태

2008년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36,204건으로 2000년의 11,605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고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는 144,386명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하였으며 이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88.4%에 달한다(보건복지부, 2009). 국제결혼증가는 1990년대 초 우리나라에서 신부감을 구하지 못한 농촌총각들이 동남아 여성들과 결혼하는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운동의 영향이 크며 정부가 농촌총각을 구제하는 것으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 여성들을 농촌총각의 배우자로 유입하였다(김혜진, 2008).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남아국가에서 한국인 남자와의 국제결혼을 장려하고 외국에서 부족한 여성을 충원하려는 한국사회, 국제결혼을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이 국제결혼을 증가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설동훈 외, 2006). 국제결혼은 주로 도시 외각지역에서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언론, 방송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와 성역할의 국제적 차이, 언어소통의 문제에서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다. 또한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남성과 시댁 식구들은 이들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여성이라는 이유와 피부색깔로 차별을 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경제적, 성적, 문

화적 측면에서 한국사회에서 열등감과 왜곡된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농촌총각들이 배우자와 배우자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국제결혼을 서둘렀다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거나 중국동포 여성들의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으로 국제결혼에 있어 이혼이 증가하기도 한다(최현미 외, 2008).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은 결혼 전에 외국인 아내와의 문화적 차이를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결혼 후에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면서도 본인은 배우자 국가의 문화를 배우거나 이해하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다. 즉 외국인 아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한국문화에 익숙해져서 한국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집단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일시하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한국인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서 동남아 출신 여성들을 선택하는 동기는 동질적이고 혈동적인 기대와 가부장적인 생활양식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강기정외, 2009), 결혼이주여성 기후, 음식 관혼상제 등 풍습과 문화가 다른데서 오는 혼란 속에서 부부갈등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양선화, 2004).

2.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의 이해와 적응

*결혼이주여성은 교육, 식생활, 생활풍습에서 차이를 느끼며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차성란, 2009). 하지만 국제결혼 부부는 내국인 부부와 다른 상황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며 언어, 관습, 가치관 등 문화적 차이는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김현숙, 2010). 결혼이주여성의 갈등은 사회적인 편견

에 의한 차별대우와 지나친 관심과 무시, 친정 가족에 의한 부담 등이 원인으로(채옥희 외, 2009) 부부간의 문화차이는 부부 전체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ltals et al. 2000).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부부갈등은 높아지고, 결혼행복감이 감소되며, 부부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양희, 2007; 이영선, 2008).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주류 문화 속의 소수인 결혼이주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 소수문화와 접촉하게 되는 주류문화에 속한 한국인 남성과 가족들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정, 2007). 다문화가족의 갈등은 경제문제, 성역할에 따른 역할기대의 불일치, 한국문화에 대한 일방적 강요, 간섭과 통제에 의한 갈등, 사회적 편견, 나이차이 등을 들 수 있다(박경동, 2007). 다문화가정의 갈등들은 한국의 부계혈통주의와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양계주의와의 차이에서 발생하며 특히 한국의 부계혈통주의 문화전수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시어머니의 역할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한건수, 2006). 다문화가족의 부부간의 갈등은 현재 별거나 이혼을 한 사람들 중 부부폭력 경험이 많으며 언어폭력은 70~80%, 신체적 폭력은 50%, 남편으로부터 성행위 강요가 40%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함께 나타난 문화 다양성을 다문화 사회의 기본 요소로 인정하고 기존의 질서를 전제로 한 사회질서의 회복 대신 다양한 문화의 교류와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한 창조적 공동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김이선, 2008). 이들을 위하여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 문화적 충격을 완화하여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주체적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문화적 접근으로 제공해야 한다(오윤자, 2008).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현실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의지와 노력이 핵심이 될지라도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남편의 배려와 기다림, 시부모의 문화차이에 대한 인지는 다문화가족이 함께 나누어야 할 역할이다(장진경 외, 2008). 특히 다문화가족의 남편이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의 남편이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성역할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강기정 외, 2009).

3. 결혼이주여성 자녀(유아)의 문화적응과 이해

인간발달에서 생태적 관점과 전(全)생애적 관점이 강조되면서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에서 부모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김현정 외, 2008). 부모와 가족은 영유아기 다문화교육에서 중요한 주체라고 할 수 있고, 영유아기 다문화교육의 효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유아기의 가정배경은 교육기관 적응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체계로 영유아기 다문화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육기관과 가정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다문화교육은 보육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부모들의 자녀교육 실제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이미혜, 2004). 다문화가정의 미취학 자녀를 보육 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비율은 27.3%로 한국사회의 평균(56.8%)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행동은 일반가정의 유아들과는 다르며 다문화가정이 처한 사회적 위치나 결혼이주 부모의 적응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사회적응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 가족과 사회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Garcia-Coll & Szalcha, 2004). 결혼이주여성 자녀가 만 3세미만일 때는 자신이 주로 양육하다가(75.8%), 3세 이후에는 보육시

설이나 유치원(53%)으로 주양육자의 역할을 전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숙, 2007). 다문화가정을 통해 태어난 2세대인 자녀들은 태어나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남들과 다름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다양한 또래의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 이 때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자신이 다른 피부색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17.6%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고, 집단 따돌림의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라서(34.1%)가 제일 많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20.7%), 특별한 이유 없이(15.9%)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어린이집에서 다른 또래아이들과 어울려 생활할 때에 가족이나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자신의 피부색이나 어머니의 다른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유아기 때 자신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면 이들이 성장하여 초등학교에 가서도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이고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은 자녀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첫 사회인 어린이집에서 적응을 못하는 일이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단일민족이라는 가치관이 어른·아이 모두에게 있고 이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부정적인 현상과 연관이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첫 사회인 어린이집에서 신 소외계층으로 대두되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생활에서도 소외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홍달아기 외, 2006). 가정과 교육(어린이집)이 연계된 다문화교육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 문화적 혼돈을 겪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교육

현재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을 받아본적이 없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맞고 있으며 상당수의 교사는 다문화교육 실시과정에서 자신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사용 활동자료집으로 다문화 관련 활동 29개를 개발하고, 동요 4곡과 동화 3편을 창작하여 수록함과 동시에 각 활동별 교사참고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부모지침서로는 자녀의 세계이해를 돕고 다문화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관련이론과 지침, 대화방법, 다문화 관련도서와 체험학습장, 다문화가정의 지원기관을 소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교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 보육기관 교사들이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 느끼는 어려움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부족(92.4%)과 우리나라(한국)의 상황에 맞는 다문화교육자료의 부족(71.8%)을 꼽고 있다(김정원 외, 2009).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어머니나라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른나라에 대한 문화(의복, 음식, 전통놀이)교육은 다문화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교사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보호하고 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 보육, 공동체놀이, 통합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교사는 평상시에도 다문화활동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다양한 문화가 있고 자신의 엄마와 자신은 다양한 문화속의 일원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원아들에게는 세계에는 많은 나라가 있고 다른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익히도록 한다. 어린이집교사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교육활동에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언어적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업시간에 결혼이주여성을 일일교사(특별교사)로 하여 각 나라 음식이나 문화를 소개해 보는 것도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좋은 교육이 될 것이다. 원아들은 다른나라 음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나라 문화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갖는 이중 언어와 다문화적인 감수성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글로벌 인재 역할을 하며 사회·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는 순기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학의 아동복지학과, 보육학과에는 다문화가정나 문화에 대한 교과과목이 없으며 현재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중 가족복지시간에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일부 내용만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도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다문화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서울시 동작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에 다문화어린이집을 설립하였다.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원어민교사파견, 가족지원상담사 파견, 언어치료사, 외국어로 도서를 활용한 문화접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어린이집의 다문화통합교육 프로그램이다.

〈표 1〉 다문화 통합교육프로그램 연간교육계획안

월	주제	소 주 제	일상생활활동 (지역사회 / 세시풍속)
1	새해	<다문화 관련활동> - 새해를 맞이해요 (각 나라별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과 전통 의상, 음식 등을 알아본다.)	* 동네 둘러보기

〈표 1〉 계속

2	재미있는 숫자	<다문화 관련활동> - 숫자를 다르게 불러요 (숫자는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나라마다 부르는 언어가 다를음을 안다.)	* 설날 * 동네 둘러보기
3	깊은바다 친구들	<다문화 관련활동> - 우리 모두 친구예요 (친구에게 관심 갖고 친구의 좋은 점 알아보기)	* 삼짱날 * 동네 주변 돌아보기
4	민들레	<다문화 관련활동> - 서양 민들레와 우리나라 민들레 찾기 (서양 민들레와 우리나라 민들레를 사진을 비교해 보고 주변에서 찾아본다.)	* 한식, 초파일 * 주변을 보며 민들레 찾기 * 민들레 씨 심기
5	얼굴	<다문화 관련활동> - 얼굴색이 달라요 (얼굴색이 다른 친구가 있음을 알고 미술활동으로 표현해 본다.)	* 주변 얼굴이 비치는 건물 찾기
6	개미	<다문화 관련활동> - 다양한 장소에서 사는 개미 (숲에서 집에서 사막등 서로 다른 장소에서 살아가는 개미의 모습들을 이야기 나누기)	* 단오 * 개미가 살고 있는 곳 찾아보기
7	물 & 물놀이	<다문화 관련활동> - 물을 아껴 써요(일상활동) (물을 아껴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아껴 쓰지 않은 물,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아껴 쓰기를 실천한다.)	* 유두절 * 물놀이장 찾아가기
8	물고기	<다문화 관련활동> - 무지개 물고기 (무지개 물고기 동화를 듣고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동극을 해 본다.)	* 칠월칠석 * 수족관 방문하기 * 생선시장 방문
9	우리나라	<다문화 관련활동> - 나라별 전통놀이 (나라별 전통놀이의 종류와 놀이법을 알아보고 활동해 본다.)	* 한가위 *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것을 주변에서 찾아보기
10	나뭇잎	<다문화 관련활동> - 나라별 나무 찾기 (나라마다 대표적인 나무를 찾아보고 주변에서 탐색한다.)	* 중앙절 * 주변 돌아보며 나뭇잎 변화 관찰하기
11	교통기관	<다문화 관련활동> - 여행을 가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을 만나요)	* 동짓날 * 동네에 많이 있는 자동차 찾아보기
12	눈 & 크리스마스	<다문화 관련활동> - 세계 여러 나라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여 엄마의 요리를 소개하고 함께 나누어 먹는다)	* 동네 둘러보기

자료: 2010년 서울시 동작구 구립 큰나무어린이집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한국사회는 외국인여성이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은 당연하며 가족문화와 음식이나 한글 등 한국문화에 순응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경향이 있고(이수자, 2004), 남편 중심적 생활양식의 강요는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정생활문화 이해와 적응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우리사회는 결혼이주여성이 소수이므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응노력을 결혼이주여성에게만 요구하는 개인적차원이었지만, 국제결혼 가족의 비율이 점차 증가 하는 현 시점에서는 단순한 적응차원의 문제를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문화충돌로 인한 갈등이 사회문제화 할 가능성이 크므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이여봉, 2006).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위해 다문화가정에서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있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강기정 외, 2009; 김현숙 외, 2010; 오윤자, 2008; 장진경 외, 2008; 차성란, 2009; 채옥희 외, 2009)를 근거로 개인적인 요인, 가족적인 요인,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무엇인가?
- (2)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 요인은 무엇인가?
- (3)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은 무엇인가?

2.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서울시 중 동작구가 2009년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집 명칭도 다문화어린이집으로 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 우수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동작구 사당 1동에 설립한 다문화어린이집과 강남구, 강서구, 강동구, 강북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9군데에서 다문화가정 16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결혼이주여성을 선정하였다. 첫째는 한국어 언어실력이 중 이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결혼이주여성이며 둘째는 어린이집에서 특별수업으로 자신의 나라 문화(요리, 언어, 풍습)를 하기 원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였다. 특히 한국의 가정생활문화와 자신의 나라에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하기 이전에 어린이집 원장선생님과 교사를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결혼 성립과정, 현재 결혼생활의 어려운 점,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경험이나 의견,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점, 한국의 전통문화의 좋은점에 대해 사전에 대화를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의 나라문화 및 언어, 음식에 대하여 교육하며 이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기를 원하였다. 한국의 가정생활문화와 자신의 나라 문화간에 차이를 어떻게 적응하며 이를 자녀들에게 전달하는지를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면접 전 연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게 하였다.

3. 자료수집

면접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하며 Johnson (1989)는 이런 분위기 형성을 위한 중요한 특성으로 공감, 진심, 그리고 온화함을 들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각 평균 2시간 소요로 2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을 16명을 대상

으로 2010년 6월 16일부터 7월 28일에 걸쳐 개별심층인터뷰에 가정생활문화에 관해 유목화된 개방형질문지(이영세 외 2005)를 사용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하여 면접자의 생활실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한국어 능력이 중 정도로 자신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적, 남편과 아내의 연령, 학력, 이주기간, 남편의 직업, 자녀수, 살고 있는 주택의 형태, 경제수준정도, 시부모와 동거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부부적응도, 문화적응도, 문화지도도)과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인 요인을 자녀를 중심으로(자녀에게 모국의 문화교육, 중점을 두는 자녀교육, 자녀에 대한 관심도),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외국인에 대한 차별, 한국생활에서 어려움점, 의사소통정도, 정부·기초자치단체의 복지정책), 문화적 요인(관혼상제, 음식문화, 전통문화, 문화유적지 방문)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용어 정의 1: 다문화 가족의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은 2009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한 이민자,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며 이들 가족을 비차별적으로 수용하는 의미를 포함한다(이무영, 2009).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을 일컫는 표현은 세 가지로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혈인가족’과 서로 다른 나라 사이에 결혼의 형태를 의미하는 국제결혼가족, 마지막으로 한 부모 가정·독신자가정처럼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이 그것이다.

용어정의 2: 가정생활문화

가정생활문화 형성에는 행동의 방향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과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가치가 개인 및 사회에 대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최연실, 1995). 한가족은 가정이라는 일정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게 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생활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이해하게 된다. 한 가족이 동재 집단으로 함께 오래 살다 보면 그 가족만이 지니는 고유한 생활습관, 풍습, 즉 가족만의 문화를 가지게 된다. 가족문화는 사회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가족구성원에 의해 고유되며 세대간 학습을 통해 전달되는 특성을 갖는다(송인자, 1999)

용어정의 3: 문화이해와 적응

문화 이해와 융합은 우리와는 다른나라 사람의 다른 문화가 자신의 문화와 함께 하나의 문화로 자신들의 생활 안에서 자리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간 접촉을 통해 나타나는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문화적 근원이 다른 사람들 간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일어나는 변화이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 7명 43.7%, 베트남 3명 18.7%, 일본 3명 18.7%, 필리핀 2명 12.5%, 몽골이 1명 6.3%로 나타났다. 조선족이나 필리핀의 여성들이 다른 국적의 여성보다 이혼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어 사용능력이 낮은 여성일수록 이혼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면접 대상자	아내 출신국	남편 연령	아내 연령	아내 학력	이주 기간	남편 직업	자녀수 (연령)	주택 유형	경제 수준	시부모 동거여부
1	일본	40	33	대학중퇴	7년	제조업	2명(7, 6)	APT	중	x
2	중국	48	38	중졸	6년	택시기사	1명(4)	임대APT	하	o
3	베트남	41	25	초졸	4년	서비스업	1명(4)	아파트전세	중	o
4	중국	49	38	중졸	6년	상업	2명(6, 3)	APT	하	o
5	중국	48	36	중졸	8년	상업	1명(7)	단독주택	하	x
6	필리핀	40	32	고졸	6년	회사원	2명(5, 3)	단독주택	중하	x
7	필리핀	53	35	대학 중퇴	8년	회사원	2명(8, 6)	단독주택	중	x
8	중국	37	35	중졸	1년 7개월	노점상인	1명(7)	단독주택	하	x
9	중국	28	28	대학 2년	3년	쇼핑몰 직원	1명(3)	APT	중	x
10	중국	44	38	고졸	7년	자영업	2명(7, 5)	다가구주택	중	x
11	베트남	49	27	고졸	5년	기계회사	1명(6)	APT	중	x
12	베트남	42	34	중졸	6년	목수	2명(5, 3)	APT	중	x
13	중국	48	43	고졸	14년	화훼업	3명(7, 5, 4)	연립주택	하	x
14	베트남	50	24	고졸	4년	회사원	1명(4)	APT	중	x
15	일본	52	50	고졸	10년	회사원	2명(10, 6)	APT	하	x
16	몽골	41	29	대졸	5년	말훈련사	2명(1,2)	단독주택	상	x

(박재규, 2007).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은 30대 56.2%, 20대 31.2%, 40대, 50대가 각각 6.3%로 30대의 연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의 연령은 40대 69%, 50대 19%이며 30대, 20대가 각각 6.3%이다. 유가호 등 (2008)에 의하면 결혼이민여성의 연령은 20대가 44.1%로 가장 많고 30대는 33.9%, 40대 12.8%이며, 20세 이하도 6.3%에 달해 연령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의 연령 차이에 있어서 가장 많은 연령차이는 26세 (남편은 50, 아내는 24)이고, 가장 차이가 적은 경우는 남편과 부인 동갑(남편 28, 아내 28)이다. 조사결과 사해가족 부부의 평균 연령차이는 10.9세로 통계청(2008)의 11.8

세보다 0.9세가 더 어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이민여성은 어리고 그에 비해 한국인 남편은 나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37.5%, 중졸이 31%, 대학중퇴가 19%, 대졸, 초졸이 각각 6.3%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이주기간은 6년이 25%를 가장 많고, 8년, 7년, 5년, 4년이 12.5%이며 가장 긴 것은 14년이고 가장 짧은 것은 1년 7개월로 나타났으며 연구에서 결혼연수가 길수록 결혼만족도가 낮다는 결과가 있다(이호신, 2000)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의 직업은 회사원이 37.5%, 상업이 25%, 제조업, 택시기사, 서비스업, 노점상인, 목수, 말훈련사로 각각 1명인 6.3%로

나타났다. 사례 16은 아내가 몽골인으로 남편의 직업은 말훈련사로 경제적인 수준이 매우 높으며 남편의 직업이 사무직, 전문직일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규삼, 1999). 결혼이주여성은 자녀수는 1명 50% 2명은 43.7% , 3자녀는 6.3%로 나타났다. 대부분 1-2 자녀인데 반해 13사례만이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고 있는 주택은 아파트가 31.2%, 단독주택이 31.2%이고 아파트 전세가 18.7%,이며 임대아파트,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이 각각 6.3%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중이 50%, 하가 37.5%, 상과 중하가 각각 6.3%로 나타났으며 월소득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국내 결혼한 부부의 경우, 월소득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1992; 김화자 외, 1991). 결혼이주여성은 남편과의 관계는 좋다가 43.7% 보통이다가 56.2%로 남편과 관계는 비교적 좋은편이지만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다가 81.2%이나 18.7%는 괜찮다고 하였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결혼을 후회하거나 이혼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에 50.0%가 이혼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하였다. 국제결혼한 부부는 대부분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배우자와 대화시 사용하는 언어는 96.3%가 한국어(설동훈 외, 2006)를 사용하여 결혼이민자들은 언어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은 시부모와 따로 사는 것이 81.2%, 함께 사는 것이 18.7% 이지만 사례 1은 차로 5분 거리에 시부모가 살고 계시며, 사례 8은 옆에 따로 살지만 식사는 같이 한다고 하였다. 5월 8일 어버이날은 아는가에 93.7%가 알고 있다고 한 반면 사례 3만이 모른다고 하였다. 어버이날 선물로는 선물을 하지 않았다가 37.5%인 반면 62.5%가 꽃이나 현금, 옷선물, 양말을 하였으며 사례1은 선물은 하지 않았지만 집에서 손

수 만든 음식으로 저녁 식사대접을 하였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결혼이주여성들은 시부모와 함께 살지는 않지만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을 찾아 뵙고 선물을 드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전통명절인 구정이나 추석을 비롯하여 관혼상제의 하나인 제사에 음식을 장만 등의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며 남자들은 여자들이 장만해 놓은 음식을 먹으며 놀이문화를 즐기는 것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의 가정생활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2.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요인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과 안정된 가족생활을 위해 한국인 남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생활 및 가정생활문화, 가정생활적응요인, 문화적응과 결혼생활 관련요인 등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강기정 외, 2009; 김현숙 외, 2010; 오윤자, 2008; 장진경 외, 2008; 차성란, 2009; 채옥희 외, 2009)를 근거로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요인을 설정하였다.

1) 부부적응도

행복한 결혼에서 나타나는 표현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며 가족 전체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전조가 된다는 점에서 가족 내의 결혼 만족도는 매우 중요하다(Nielsen, 2002). 가정생활은 부부간의 문제문제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시부모나 남편의 형제와의 관계는 우리나라 남성 중심적 가족구조로 인해 결혼이민여성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홍기혜, 2000; 윤형숙, 2005).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연구(박정윤, 2007; 김현재, 2007; 홍달아기 외, 2006)에서 밝혀진 결혼이민여성들의 생활

문제는 남편을 비롯한 남편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문화차이, 언어장벽, 자녀교육, 편견 및 외로움으로 나타났다. 그중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한국남성은 문화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성격 탓으로 하는 일이 많아 가족과 부부 간의 갈등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한건수, 2006). 결혼이주여성을 상담한 결과 남편들이 낮은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부인의 어려움을 현실적인 삶에서 배려하지 않아 부부갈등을 느낀다고 하였다(김상임, 2004). 또한 아내보다 부모에 대한 효도나 친척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므로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가족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는 행동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금혜, 2007).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형제가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에 본국사람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말린다가 38%인데 반해 좋은 사람이면 괜찮다가 63%로 나타났다. 결혼 이후 친정인 고향을 방문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로 자녀와 함께 친정을 방문하여 자녀에게 어머니가 다른나라 사람이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1년에 한번씩 친정에 보내 주는 남편이 항상 고마워요. 하지만 한국적 사고방식이 너무 심하고 시댁문제와 남편의 고정관념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아 한 때는 이혼을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도 지금은 어느 정도 남편의 성격에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우리 형제나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사람과 결혼한다면 적극적으로 말릴 거예요. 만일 꼭 해야 한다면 한국에서 살지 말고 일본이나 다른데서 살라고 할 거예요”(사례 1)

“서로 간에 감정 안 좋고 이 문제로 부부싸움을 자주해요. 남편과 말이 안통해서 너무도 답답

해서 이혼을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만일 우리 형제가 한국사람과 결혼한다면 절대적으로 말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관계가 좀 나아졌고 남편도 나에게 잘해 주려고 해요. 남편이 아이에게 신경 써주어서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사례 5)

“친정에 데리고 가고 사랑해 주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형제가 한국사람과 결혼한다면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할 거예요.”(사례6)

“당뇨를 앓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며 술 담배를 하지 않는 남편이 항상 고맙게 생각돼요.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하고 가족나들이를 많이 못하는 것이 큰 불만이지만 일부러 안 가는게 아니라 일요일에도 일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형제가 한국사람과 결혼한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도 지금 한국사람과 생활하는것이 행복하니까요.”(사례 10)

“아이를 돌보아 주지 않고 나와 생각이 너무도 다르며 남편이 고마운 점은 별로 없어요.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고 결혼을 왜 했는지 후회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지만 이혼이 쉽지가 않네요. 다른 베트남 사람들은 다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이혼해서 갈 때도 마땅히 없어요. 우리 형제가 한국사람과 결혼한다면 적극 말리겠어요. 남편이 결혼기념일이나 내 생일날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해서 받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신경도 쓰이지 않아요. 남편과의 관계는 그저 그런 편이에요.”(사례 12)

“남편이 나와 말할 때 무시하는 말투가 너무 싫어요. 남편이 아이들을 잘 봐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것은 고맙기는 하지만 항상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서 이혼을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지금도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결혼을 후회하기도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살고 있어요”(사례 13)

“남편이 사고 싶은 것을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항상 불만이 많아요. 하지만 시장보기를 잘 도와주고 아이를 잘 돌봐 주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말이 안 통해서 정말로 답답하기는 하지만 결혼을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우리 형제가 한국사람과 결혼한다면 대체로 좋은 사람이면 괜찮아요.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사례 15)

2) 문화적응도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며 여행 및 문화적인 교류는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친밀도를 높이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음식을 만드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남편의 식사준비에 대한 관심정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의 가부장적이며 권위적인 문화로 인하여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고 (강복정, 2006),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불안이나 우울, 신체적 증상, 심리적 어려움으로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저해하며(고은주, 2009),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며 부부 갈등의 여러 요인 중 문화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였다(김오남, 2006). 식사준비에 대한 남편의 태도는 도와주지 않는다가 55%, 잘 도와준다가 25%, 무관심하다가 19%이다. 남편과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시장등 장보기를 같이 하는 횟수는 1주일에 1번이 32%, 한달에 1번 32%, 2주일에 한번이 19%, 없다가 13%로 나타났다. 남편과 영화를 본 적은 50%가 있다고 하였으며 여행은 65%가 가족과 함께 갔으며 여행을 가본 곳으로는 제주도가 19%로 가장 많았다.

"남편은 국제결혼을 했어도 한국방식의 생각이나 행동을 따르라고 하고 집안일은 여자몫이라고 생각하며 전혀 도와주지 않으며 무관심해서 불만이에요. 남편과 극장을 가본 것은 첫애 임신 중에 한번 밖에 없고 남편과 여행을 가본 적도 없

지만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생각이 "다른 것은 나를 힘들게 해서 신혼 때는 좋았지만 중간에 이혼을 생각할 만큼 사이가 나빴지만 지금은 그냥 지내고 있어요." (사례 1)

"남편이 시댁에 너무 자주 가서 밥을 먹고 오는 문제로 자주 다투고 있어요. 내가 해준 음식에 입맛에 안 맞아서 시작한 저녁이 거의 매일 시댁에서 먹어요. 나도 남편이 집에서 밥을 잘 안먹으니깐 한국음식하는게 늘지 않아서 걱정이 돼요. 아이들에게는 필리핀 음식을 가끔 해 주는데 남편은 손도 대지 않아요. 그래도 나를 데리고 필리핀 음식점에 데리고 가서 다행이에요." (사례 6)

"7년 한국생활을 했으니 요리도 조금 할 수 있고 남편도 내가 만든 한국음식을 괜찮고 먹을만하다고 해요. 처음에는 남편이 한국요리를 가르쳐 주었지만 그동안 TV의 요리시간도 열심히 보고 해서 지금은 한국음식 만드는 것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사례 10)

"남편과 여행이니 극장을 갈 만한 여유가 없어서 간적은 없지만 가까운 공원이나 놀이터에 아이 데리고 자주 가서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려고 해요. 남편이 내가 한국 음식을 잘 못해도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따뜻하게 대해 주어서 항상 고마워요. 옆에 사시는 시어머니한테 가서 음식하는 것을 배우는데 한국음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사례 8)

"남편이 몽골음식을 전혀 먹지 못해서 남편과 외식을 할 때에는 한국음식점에 가요. 식사준비하면 남편이 잘 도와주고 장보러도 같이 자주 가요. 식사준비는 한국음식과 몽골음식을 반반씩 하지만 몽골음식은 만들어서 나만 먹어요. 남편은 몽골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서 먹을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만든 몽골음식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아서 어느 때는 섭섭하기도 해요." (사례16)

3) 문화 지지도

(1) 외부활동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신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문화가치 안에서 다른 문화를 접촉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 사회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Berry 2005). 새로운 문화를 익히기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외부활동으로 문화센터에 가는것에 대한 남편의 반응은 75%가 아내가 문화강좌에 가는 것을 적극 권장하나 결혼이주여성 중에는 강좌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2) 본국사람들과 친교활동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서 항수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으며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본국에서 온 사람들과의 친교활동에 대한 남편의 태도와 사회 환경은 결혼이주여성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조모임에 따른 결혼만족도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은 결속력이 강한 자조모임을 통해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특히 결혼만족도가 낮거나 부부간의 갈등이 클수록 자조모임이 주는 지지와 힘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주 외, 2007). 구차순(2007)의 연구에서도 이민여성들은 종교기관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거나 같은 종교인의 조언과 심리적 지지로 정신적인 지원을 받으며 한국생활을 적응해 가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먼저 정착한 친구가 문화적응과 일상생활에 대한 세심한 조언 및 상담을 해주거나 친목회를 형성하여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며 지지해주는 사례도 있어 모국친구의 지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내가 외부활동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내가 한국생활을 배울 곳이 없어서 남편에게

잠깐 강좌만 받고 오겠다고 했지만 싫다고 해서 외부강좌를 받아 본적이 없어요. 남편이 나이차(16년)가 있어서 그런거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힘드네요. 베트남사람들과 남편이 몇번 만난 적은 있는데 말도 안하고 화 난 사람처럼 있어서 그다음 부터는 자주 안 나가게 되고 지금은 모임에 가지 않아요. 모임에는 가지 않고 언니들과는 가끔씩 전화는 해요."(사례 3)

"외부활동이나 모임은 집안 일은 다해 놓은 상태에서 식구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남편은 말하지만 지금은 거의 본국사람들과 관계를 끊었어요.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외롭고 힘들어서 자주 만났는데 남편이 남녀가 모이는 모임을 싫다고해서 안나가요. 남편은 여자하고 그릇은 밖으로 내놓으면 깨진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남편과 싸우면 나만 힘들어지니까 남편이 싫어하는 일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남편도 내가 중국사람들과 안 만나는 걸 알고 미안해서 그런지 잘해주고 그런대로 지낼만 해요." (사례 10)

"남편은 내 외부활동이나 본국사람들 모임에 나가는 것을 좋아해요. 나가서 많이 배우고 친구들과 만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라고 하고요. 나도 본국사람들 모임에 갔다 오면 덜 외로운 것 같고 일본에서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서 모임이 기다려져요" (사례15)

(3) 취업희망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하며 1사례는 한국어 외에 일어와 영어, 7사례는 필리핀어와 영어, 13사례는 중국어와 영어, 16사례는 몽골어와 러시아어를 할 수 있어 본인들의 외국어로 취업을 하고 싶어한다. 남편도 아내에게 취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의 87.5%가 한국에서 직장이 주어진다면 하겠다고 하는 반면에 10사례는 아이 때문에 직장을 갖기 보다는

주부로 살고 싶다고 하였다. 취업분야는 본국에서 전공을 하였거나 모국에서 하였던 일을 원하며 81.2%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교육과 연관된 내용으로 자신의 나라 문화와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3.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요인 - 자녀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치관과 생활 태도가 각각 다른 이중문화의 성격을 지닌 국제결혼가정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성장하면서 많은 갈등과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언어, 풍습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났으며 부모와의 문제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로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인식의 차이 문제, 둘째로 언어소통에서 오는 문제로 인하여 부모자식간의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거나 자기를 이해시키는데 어려운문제, 셋째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부모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풍습 중에서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의 혼돈을 겪는다.

1) 자녀 교육

결혼이주여성이 가정에서 어머니가 다른나라 사람임을 인정받는 것은 남편을 비롯한 가족원 모두가 엄마가 우리와는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문화에서 살았던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엄마가 우리와는 다른나라 사람이지만 존재가치를 인정하게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김미령(2005)은 결혼이주 여성들이 이주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과거 모국에서 수행하였던 역할이 상실되고 새로운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며 이러한 역할전환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최명선 외 (2008)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

레스와 양육스트레스가 관련이 있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녀의 숙제를 봐 주는 것이 힘들지만 68.7%의 어머니가 자녀의 숙제를 봐주지만 자녀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힘들어 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87.5%가 자녀를 데리고 자신의 모국방문을 통해 자신의 자녀에게 어머니가 다른나라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다.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교사가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68.7%는 다른 학부모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아이가 커가면서 식구 중 엄마 만 다르다고 느끼고 있어요. 아이가 엄마 때문에 상처 받지 말았으면 해요. 그동안은 남편도 내가 일본사람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아는것을 힘들어 해서 지금까지 엄마가 외국인임을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나 주위 사람에게 알리려고 해요. 남편은 아내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 대했던과는 달리 대하는 한국사람들의 태도를 알고 나도 남편의 그런 생각을 이해하고 있어서 아이에게 엄마애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아이가 상처를 받았을 것 같네요. 하지만 아이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었으면 해요. 한국사람들이 과거의 역사 때문에 일본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일본이란 나라를 객관적으로 봐 주는 한국사회가 되었으면 해요." (사례 1)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와 잘 지내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이 다문화가족이라고 잘 놀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만 해요.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친구를 사귀는 것을 어렵게 하나봐요. 아빠도 아이와 놀아 주려고 애쓰는데 잘 안돼요.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할 줄 모른다고 하니깐 아이가 말은 안하지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아이에게 사교육으로 영어를 하

고 있는데 영어만은 열심히 하네요. 학원비가 너무 부담이 되지만 아이가 좋아하니깐 계속시키려고 해요."(사례 5)

"한국 국적이 안 나와서 아이들 교육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아이들이 엄마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 있지만 특별히 엄마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이에게 우리나라 음식이나 의상을 입혀 본적도 없고 모국의 언어를 가르쳐 본적도 없지만 기회가 되어 어린이집에서 교육한다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네요."(사례 8)

"아이가 어려서 아직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면 알릴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내가 어렸을 때 중국에서 먹었던 음식을 해서 먹이기도 해요. 아이들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 먹어요. 가끔 아이들이 TV에 중국사람들이 입고 나오면 중국옷을 보고 엄마 옷과 같다고 하면서 좋아해요. 나도 가끔 결혼하면서 중국에서 가져 왔던 옷을 꺼내 볼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옷을 보여 주기도 하고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을 보면 어릴 때 놀던 고향이 생각이 나요.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고유의 상과 음식을 자랑하고 싶어요.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이들이 나이에 맞게 밝게 커 주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방인 외국인이라고 상처받지 않고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에요."(사례 10)

4.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요인

1) 사회적 요인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어려움은 한국어의 부족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자녀 교육, 일자리 찾기, 눈길, 시선, 경제적 어려움, 친구가 없는 것, 외국인에 대해 심한 차별을 듣고 있으며 한국어를 가르치는 전문적인 기관을 찾아 교육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1) 외국인에 대한 차별

사례 11은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차별이나 불편도 많지만 가족간에 느끼는 차별이 더 심하고 힘들다고 하였다. 국제결혼을 처음 하였을 때 남편의 형제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 서로 웃기만 하였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자녀를 낳았어도 남편형제들과 관계는 처음 시집 올 때와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와는 따로 살고 있지만 생활방식이 맞지 않아 시댁식구와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례 15는 다문화관계자는 이해해 주지만 TV에서 일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1사례는 역사 때문에 생긴 선입견으로 일본 사람은 다 잔인하고 냉정하며 나쁜 사람이라고 아이들 생각에 심어 놓은 것이 안타까우며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에 대한 차별이 특히 심하다고 하였다. 사례 10는 모든 곳에서 외국인 차별을 해서 기분이 나쁘며 외모가 한국인 같아서 말을 안 할 때는 차별이 안하다가도 말을 하여 외국인 것을 알고는 차별을 하며 물건을 살 때 상인들이 일부러 말을 빠르게 하여 못 알아 듣게 한다고 하였다. 사례 14는 한국사회에서 동남아시아 사람을 인격적으로 차별하며 국적이 있음에도 외국인 취급을 하고 외국인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본다. 사례 16는 출입국에서의 차별이 심하고 특히 비자를 연장 때에는 태도가 달라지며 출입국 사무국 직원들의 불친절은 나라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인다.

(2) 한국생활에서 좋은 점과 어려운 점

한국사회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차별과 편견이 있어 힘든 점도 있지만 동남아 국가에서 온 여성들은 4계절이 있어 계절변화가 재미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기쁘다고 하였다. 사례3은 한국은 일하며 번 돈으로 저축할 수 있어서 좋고 놀거리가 많으며, 사례 10은 한국은 본국보다 자원봉사자가 많아서 좋다고 한 것은 다문

화가족을 위한 자원봉사자가 많은 것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은 언어나 음식 주거생활에 대해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서두르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적은 것을 들고 있다. 우리는 외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적으며 외국인들이 우리사회에서 느끼는 힘들고 불편 한 점은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례 4는 한국사람들이 중국의 문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힘들며 사례 12는 한국인이 거짓말을 잘하고 사례 14 버스이동이 자주 있어 혼동이 있고 동네 위치가 비슷해서 집을 찾고 익히기에 불편하며 물건의 위치를 찾는 것도 힘들다고 하였다. 사례 15는 물건 살 때 시장은 가격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시장에는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의사소통을 하며, 사례 16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였다. 사례 13은 중매업체는 많은 돈을 요구하고 거짓을 일삼아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사례 14는 중매업체보다는 친구의 소개가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3) 의사소통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문제(홍달아기 외, 2007)는 결혼이주여성의 원만한 부부관계 형성을 어렵게 한다. 한국어 능력은 상이 37.5%, 중이 62.5%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한국어를 배울 때 상대에 따라 존대어 사용법이 어렵고 사투리를 쓰고 말이 빨라서 알아 듣지 못해도 친절히 해주는 배려를 원하고 있다. 한국어가 서툴렀을 때 시장에는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없어 물건 흥정을 못하며 그냥 넘어간 경험을 갖고 있다. 한국말이 서툴렀을 때는 혼자서 자녀를 데리고 나가는 것이 어렵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남편과 같이 가며 대화할 때 존대말을 실수 할까봐 걱정을 하였다.

(4) 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정부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결혼이민자인 다문화가족에 대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국제결혼을 한 여성 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차원의 핵심적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달체제로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들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지역 문화센터에 가 본적이 있는가에 75%, 없다가 25%이며 강좌내용은 실용적인 내용이나 언어나 대화, 한국어, 부모교육을 원하고 있다. 사례 10, 사례 14, 사례 15는 실생활 언어로 한국어 교육을 해주어서 아이들이 한국어를 익히는데 드는 사교육비를 줄일수 있어 좋고 다문화 프로그램은 아이들 정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방송 매체에서도 다문화 가정을 위해 방송에 노력하고 있지만 다문화 문화 체험같은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87.5%는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있지만 다문화지원법에 대해서는 50%가 모른다고 하였다.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해 잘하고 있으며 좋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례 2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사례 14는 이중국적으로 베트남동생을 초청하지 못하는 점을 들고 있다. 동남아나 중국의 결혼이주여성은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반면 사례 15는 한국의 복지제도는 일본보다 낮다고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생활 적응 및 문화 이해, 가족관계 증진, 사회적 연계망 형성 지원, 여성복지 증진, 상담, 취업기술교육 및 일자리 알선, 일반교육,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실제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일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이선, 2007). 홍달아기 등(2006)의 사례 연구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 교육이 가장

높았으나 배울 곳이 적절치 않거나 멀다고 하였다. 한국정부의 복지제도 중 의료보험을 결혼이주여성이 좋다고 하지만 진료를 받을 때 62.5%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 후 임신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불편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외국어를 잘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은 취업기회와 병원에 가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하고 있다.

2) 문화적 요인

결혼이주여성이 타문화에 문화적응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모국 문화유지수준에 관한 행동변화로 이주한 사회가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이주자가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Berry, 1997). 우리사회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문화적응과 이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어 이주여성은 자신이 살던 나라와 기후의 차이 뿐만 아니라 문화차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배워서 한국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나라 문화와 음식을 남편과 자녀에게 알리려고 한다. 관혼상례중 관례, 혼례, 제례, 상례는 가정생활관에 영향을 미치는 의례이며(김양희외, 2009) 제사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많은 연관이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음식인 김치 고추장, 된장을 알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한국음식과 자신의 나라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있다.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인 윷놀이는 68.7%가 자녀와 설날에 해본 적이 있으며, 93.7%는 한복을 입고 자녀들에게도 입혔다고 하였다. 추석날에는 송편을 만들어 먹고 달맞이를 하였다. 한국의 문화유적적인 경주나 불국사에 가본 사람은 19% 정도로 적었다. 하지만 용인 민속촌을 50%가 자녀와 함께 가본 적이 있고 그곳에서 한국의 옛날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되었다고 하였다. 한옥에 대해서는 81.2%가 알고 있었지만 우리 주거문화인 온돌에 대해서는 31.1%만이 알고 있었다.

"제사는 옛날부터 내려 오는 풍습이지만 조금 편하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식구들이 먹지도 않은 제사 음식을 잔뜩 만들어서 결국 버리게 되는 게 낭비 같아요. 구정날 한복을 입고 세배하고 떡국을 먹는 것은 정말 재미있고 좋은 것 같아요. 아이도 한복을 입혀서 세배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도 좋아하셨어요." (사례 1)

"한국문화의 좋은 점은 한국사람들이 친절하고 예의바르며 거리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용인 민속촌에 가본 적이 있고 한국의 전통놀이 중 사물놀이가 재미있어요. 남대문시장에 갔을 때 민속공예품점에 갔는데 재미있고 신기한 것이 많았어요. 한국의 전래동화는 우리나라 필리핀과는 전혀 달라요. 아이들에게 전래 동화를 읽어 주다 내가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용인 민속촌을 가보았는데 경주 불국사를 못 가봐서 한번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어요."(사례 7)

"한국 전통문화 중 가장 좋은 것은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것이예요. 세배는 어렸을 때 해본 경험이 있어서 처음 한국에 와서 구정 때 시부모님께 세배를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한복을 입고 세배를 하니깐 내가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뻐요. 하지만 한국사람들이 제사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상했어요. 내 생각은 죽은사람 보다는 살아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예요. 특히 우리 남편은 제사를 너무나 정성스럽게 지내는데 조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시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김치는 내가 직접 담가서 먹으며 아이들도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김치를 좋아해요."(사례 10)

"나는 한국의 전통문화 중 전통차를 제일 좋아합니다. 전통차를 배우고 전남 보성에 가서 차잎도 따보고 차도 가마솥에서 직접 만들어 보았

어요. 그 때 그 기쁨은 지금도 생각만 해도 좋아요. 차밭은 처음 가보았지만 왠지 내 고향 중국에 간 것 같이 낯설지가 않았어요. 처음 한복을 입었을 때는 한복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아주 잘 입어요. 한복을 입고 나가면 외국인으로 보지 않아서 좋은 점도 있구요. 민속놀이는 제기차기 윷놀이를 알고 있고 민속촌에 갔을 때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해 보았어요" (사례 13).

"한국사람들이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상을 모시는 일은 좋은 것 같으나 여자들이 음식장만으로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설날에 식구들이 모여서 만두 만들고 떡국을 끓여 먹는 것은 재미있어요 윷놀이는 내가 처음 시집왔을 때 친척들이 와서 해 본적이 있어요. 시댁 식구들이 처음 시집온 며느리에게 전통 민속놀이를 알려 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나와 아이는 설날에 한복을 입고 시어머니께 세배를 했어요. 아이가 절을 어린이집에서 배워 왔는데 곧잘 해서 시어머니가 흐뭇해 하셨어요. 몇번씩 시켜도 자기가 잘해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시어머니께 몇번 씩 세배를 해서 한바탕 웃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하고 나, 아이에게 세배돈을 주셨는데 한국의 재미있는 풍습으로 해마다 설날이 기다려져요." (사례 14)

V. 결론

어린이집의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가정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은 아내가 한국의 가정생활문화에 적응하도록 외부활동, 아내의 본국사람들과 친교활동, 아내의 취업을 지원하고 아내나라 음식을 먹으며 아내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남편들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문화차이

는 아내를 힘들게하고 자녀를 돌보아 주지 않는 것이 주요한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87.5%가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본인의 외국어 실력을 살려서 87.5%가 한국에서 직장이 갖기를 원하며,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모국어와 문화와 음식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원하고 있다.

둘째로 결혼이주여성은 자녀에게 한국음식과 한복, 전통놀이 등 한국의 전통문화와 함께 자녀들에게 자신의 나라 음식과 문화, 고유의 상을 입히며 자신의 나라 문화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1.2%는 자녀와 함께 모국인 친정에 방문하여 어머니가 외국인이며 어머니의 고향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가 다문화가족인 자신의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차별받지 않고 자녀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자녀교육의 어려움이 있지만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갖고 성장하며 부모가 가지고 있는 두 문화의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기 원하고 있다.

셋째 사회 문화적 요인에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배려가 적어 불편하지만 한국사람들이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며 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다문화지원정책을 하는 것을 좋은 점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한국의 관혼상제(제사), 음식문화, 전통문화(명절, 민속놀이), 문화유적지 방문 등 한국의 가정생활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산발적으로 시행되었던 한국어 교육을 외국인의 한국어 실력 따라 수준별로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나 병원에 한국어를 잘하는 이주여성을 채용하여 진료에 도움을 주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의 이해와 적응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인남편은 아내에게 일방적인 문화를 강요하기 보다는 서로가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다문화사회에서 이질적인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응하여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여야 한다.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국내에 결혼이주여성이 늘어나고 있고 그 중 베트남은 한국의 며느리 나라가 되었다.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한국에 온 베트남 신부는 큰 문제없이 살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무책임한 국제결혼 알선기관을 단속, 정비하고, 결혼 비자 발급기준을 강화하였으며 현지에 국제결혼 담당관을 파견하며 베트남 신부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 베트남신부는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들어오지만, 한국 남편들은 베트남에 대해 거의 모른 채 결혼을 하고 있다(조선일보, 2009). 우리정부도 국제결혼을 하려는 남성들에게 자신이 결혼하려는 신부나라의 생활풍습이나 문화, 음식 등 기본적인 언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시부모와 살지는 않지만 제사나 명절에 가사노동의 부담과 함께 가족간의 교류는 결혼이주여성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부갈등으로 힘들어 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가정생활을 이끌어 가도록 가정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은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나라 음식 및 문화 언어를 교육하기를 원하고 있다. 자녀들이 처음 교육기관인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은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갖게하고 앞으로 학업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울시 강동구 예은어린이집에서는 10월 정기행사로 부모가 함께하는 다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원아 140명 중에 2명이 다문화가정의

원아지만 전체 원아들이 각 나라의 의상을 입고 춤을 추며 세계 전통민속놀이로 토요일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는 가정과 교육기관이 연계하여 다문화교육을 실천하는 좋은 사례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에게는 자긍심을 주고 일반 원아들에게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점은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집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분석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강기정, 정천석(2009). 다문화가정 부부의 가정생활 적응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2), 153-167.
- 2) 강복정(2006). 국내 결혼이민자 가족의 문제점과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 결혼이민자 실무자 양성 워크숍 자료집.
- 3) 고은주(200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가정폭력,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외상 후 스트레스와 심리건강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4)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부산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김도희, 이정은(2009).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경로분석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77-98.
- 6) 김두섭, 이명진(2007). 국제결혼부부의 사회. 인구학적 상이성과 결혼안정성. 한국인구학 30(3), 187-219.
- 7) 김미령(2005). 북한이탈 주민들이 인지한 적응의 어려움과 극복자원이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0, 95-123.
- 8) 김상임(2004).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

- 센터 창립 3주년 심포지움. 이주여성인권센터.
- 9) 김양희(2007). 남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0) 김양희, 김효민(2009). 가정생활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2), 19.
 - 11) 김오남(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 12) 김은정(1992). 결혼초기 주부의 역할갈등 및 갈등해결방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김이선(2008).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과 소통경험을 통해 본 정신건강의 역동성. 한국 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 14) 김정원, 이주영, 김경분(2009). 다문화가정 부모 및 다문화교육에 관한 인식.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2), 7-26.
 - 15) 김현숙(2010).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적응: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153-176.
 - 16) 김현재(2007). 베트남 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이민;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고찰. 동아연구(52), 215-254.
 - 17) 김현정, 권성심(2008). 유아교사의 자아분화와 정서신념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2(3), 213-239.
 - 18) 김혜진(2008). 다문화시대에 따른 가족윤리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 19) 김화자, 윤중희(199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55-170.
 - 20) 김희주, 은성경(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위한 대처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 필리핀여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33-66.
 - 21) 박경동(2007). 다문화가족 형성과 갈등에 대한 연구 - 한국의 광주, 전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 22) 박재규(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민자 여성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427-442.
 - 23) 박정윤(2007). 결혼이민자가족생활에 관한 사례연구: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위한 비전선포. 대한가정학회지 창립 60주년 기념 통합 포럼 및 기념자료집, 89.
 - 24) 보건복지부(2009). 혼인이혼 보도자료.
 - 25) 설동훈, 이혜경, 조성남(2006). 결혼이민자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26) 송인자(1999). 개화기 여성교육론 연구. 숙명여자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 27) 신유경, 장진경(2010).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본 베트남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 적응 사례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3), 109-122.
 - 28) 양선화(2004). 상담사례에서 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 광주 전남지역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실태보고 토론회. 광주여성의 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실자료집.
 - 29) 오윤자(2008). 여성결혼이민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4), 63-77.
 - 30) 유가효, 홍성희, 김성숙(2008). 결혼이민여성의 초기 적응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95-120.
 - 31) 윤형숙(2005).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229-339.
 - 32) 이규삼(2000). 국제결혼가정의 부부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3) 이무영(2009). 다문화가족 한국남성배우자

- 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사소통 능력·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4) 이미혜(2004).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와 아버지의 인식 및 교육실제 비교.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5) 이수자(2004). 이주여성의 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타자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회보. 189- 219.
- 36) 이여봉(2006). 가족 안의 사회·사회 안의 가족. 서울 : 양서원, 331.
- 37) 이영선(2008).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수도권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8) 이영세, 이춘아, 강영주, 김정아, 이순화(2005). 여성결혼이민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초연구. 문화예술교육 05-14, 문화관광부.
- 39) 이정선(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경험과 시사점: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1(2). 217-237.
- 40) 이진숙(2007).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21-42.
- 41) 이해정(2007). 외국인 며느리를 두고 있는 농촌노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2) 이호신(2000). 결혼생활만족에 관련된 부부의 상호작용 변인들.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3) 장진경, 전종미, 신유경(2008). 심층면접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적응성 저해요인 분석. 2008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47-65.
- 44) 조선일보(2009.8.17). 베트남신부 남편도 아내나라를 알아야. 39면.
- 45) 차성관(2009). 다문화가정의 가정생활문화 통합의 지향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98.
- 46) 채옥희, 송복희 (2009).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가정생활교육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2), 111.
- 47) 채옥희, 홍달아기, 송복희 (2009). 몽골 결혼이민여성의 한국가정생활 적응사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4), 171-192.
- 48) 추현화, 박옥임, 김진희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 배우자의 가족스트레스·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2008 한국가정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285- 298.
- 49) 최금해(2007).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72(1), 143-188.
- 50) 최명선, 박민정(2008). 한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
- 51) 최연실(1995). 청소년 자녀기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2) 최현미, 이해경, 신은주, 최승희, 김연희, 송성실(2008). 다문화가족복지론.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편. 서울 : 양서원.
- 53) 통계청(2008). 인구동태(혼인). www.nso.go.kr.
- 54)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55) 홍기혜(2000). 중국조선족 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56) 홍달아기, 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 57) 홍달아기, 채옥희(2007). 국제결혼부부의 가치관과 의사소통유형과 갈등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6(4), 733-744.
- 58) Baltals, Zuha, & Andrew, Teto(2000). Migration, Culture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ing among Turkish-British married Couples. *Ethnicity & Health* 5(2), 173-180.
- 59)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Lead article).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60) Berry. J. W. (2002).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In R Brislin(ed.). *Applied cross-cltural psychology*, Newbury Park. CA: Sage. 232-253.
- 61) Berry, J. W. (2005).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edited by Kevin, M. c. Pamela, B. O. & Gerardo, M. Washington. D, C.; *Decade of Behavior*.
- 62) Garcia-Coll. C. & Szalcha. A. (2004). Children of Immigrant families. The Multiple Contexts of Middle Childhood. *The Future of Children* 14(2), 81-97.
- 63) Nielsen, M. R.(2002). Are all marriage the same? Marital satisfaction of middle-class couples. University of Chicago.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 64) Noonan. M. J. & McCormick. L. (2006).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natural environments: Methods & Procedures. Belmont, CA: Brooks.outer. & N. Landale (Eds.). *Immigration and the family: Research and policy on U. S. Immigrant*, 149-161.
- 65) Johnson. L. C.(1989). *Social Work Practice* (3rd ed.). Massachusetts:Allyn and Bacon.
- 투 고 일 : 2010년 10월 1일
 - 심 사 일 : 2010년 10월 13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11월 25일